

평동 포 사격장 200만평 60년만에 광주시 품으로

평당 1만~2만원 과격價... 과학벨트 부지 활용

지난 1950년대부터 포 사격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던 광산구 평동 군사훈련장 부지 200만평이 60여년 만에 광주시 품으로 돌아온다. 광주시는 국방부 소유인 이 부지를 과격적으로 저렴한 값에 넘겨받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부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과학벨트 광주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3면>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광섭 육군 보병학교장은 11일 오전 육군보병학교에서 평동·동백 군사훈련장 이전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는 광산구 삼도동 일대 평동 포사격장(260만7000㎡·79만평)과 광산구 오운동 일대 동백 전술훈련장(396만㎡·120만평)을 장성 상무대 종합군사훈련장 부근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광주시가 장성이나

영광 일부 지역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군사시설을 설치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광주시에 평동·동백 군사훈련장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소유권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군사훈련장 부지를 과학벨트 조성용지로 사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특히 이 부지의 경우 추정 가치가 3.3㎡(1평당) 당 1만~2만원대에 불과, 과학벨트 부지 확보의 용이에서 타지역을 압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과학벨트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과학벨트 조성용지 가격으로 3.3㎡당 15만~150만원대에 이르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군사훈련장 부지가 광주공화과 호남고속철, 호남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국내의 접근도

역시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평동 군사훈련장 이전으로 광주시는 과학벨트 유치전에서 타지역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며 "특히, 그동안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민의 숙원을 해소하게 된 것은 물론, 첨단 산업체 유치를 통해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에는 과학벨트의 입지 요건으로 ▲부지확보의 용이성 ▲국내의 접근 용이성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또는 그 가능성 등 5개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목포백년회를 비롯해 목포시의회, 목포상공회의소, 무안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등 전남 서남권 9개 시·군 40여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시민 등 3000여명이 11일 오후 목포역 광장에서 피켓과 팸플릿을 흔들며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신설 노선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권기자 dss6116@

'KTJ 新線 취소' 반발 서남권 총궐기

목포 등 9개 시·군 정부 강력 규탄

정부가 호남고속철도(KTJ) 광주~목포 구간 노선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광주일보 5일자 1면)한데 대해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호남고속철 건설 촉구 서남권 대책협의회 및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후 목포역 광장에서 'KTJ 광주~목포 구간의 신설 노선 건설을 촉구하는 쟁기대회'를 갖고 정부가 밝힌 KTJ 광주~목포 구간의 기존노선 고속화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집회에는 목포백년회를 비롯해 목포시의회, 목포상의 등 목포와 무안·해남·진도·신안 등 전남 서남권 9개 시·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시민 3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서남권 주민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KTJ 광주~목포 구간은 무안공항을 직접 거치는 신설 노선을 건설해 줄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경제성만을 고집, 기존 노선을 개량해 평균 시속 188km의 저속철도로 건설하겠다고

는 계획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남은 고속철도를 신설하고 유독 광주~목포 구간만 기존 노선을 개량하는 것은 호남차별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목포~제주 해저고속철도 신설시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래가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환 백년회 상임대표는 "지역차별의 상징물로 여겨졌던 호남선 복선의 화에 이어 고속철도의 저속철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허탈할 따름"이라며 "신설노선과 무안공항 경유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남권 대책협의회는 향후 광주~목포노선의 신설과 무안공항의 경유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과 상정집회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을 통해 KTJ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하며, 광주~목포의 경우 신설 노선이 아닌 기존 노선을 개량해 고속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과학벨트 광주·전남 유치 300만 서명운동 돌입

광주시는 11일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광주·전남 유치를 위한 300만 시·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 광주역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등 사람이 모이는 주요 장소뿐 아니라 학교와 기업체, 종교, 한나라당 및 민주

당 등 각 시·도당의 협조를 받아 서명 받는 등 과학 벨트 유치 열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과학벨트를 광주와 대구, 대전에 분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단계를 성공한 것 같다"며 "우리의 최종 목표가 성공할 수 있도록 300만

시·도민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총칭 몇몇 군데에 관련 시설을 두는 것은 벨트이고, 영·호남과 충청권에 분산 배치하는 것은 벨트 아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내륙 R&D 특구 지역인 광주와 대구, 대전은 응용기술을 연구하는 곳으로 기초과학 시설인 과학 벨트를 세 곳에 분산 배치하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역량이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지역은 부지 확보와 지반 안전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야권 단일화 타결...재보선 여야 1대1 구도

4·27 재보선 후보 등록(12~13일)을 하루 앞두고 민주·민노·진보·참여당 등 야 4당 연합공천이 사실상 성사돼 이번 재보선도 '반(反) 한나라당'을 고리로 범야권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 간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관련기사 4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3곳 중 성남 분당을(乙)에서는 지난 7일 국민참여당 이종용 후보가 민주당

후보인 손학규 대표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히며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11일에는 진보신당 이진희 예비성사돼 이번 재보선도 '반(反) 한나라당'을 고리로 범야권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 간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관련기사 4면>

경남 김해에서는 민주당 박진업, 민노당 김근태, 참여당 이봉수 후보 3자간 여론조사 경선이 이날 오후 중

요되며, 3당은 12일 오전 경선 결과 및 단일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순천은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자 민노당 김선동 후보가 참여당 후보와 후보단일화 작업을 통해 범야권 단일후보가 됐다.

강원지사 보궐선거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야권연대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민주당 최문순, 민노당 배연길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순천을 제외한 3곳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10% 내의 근소한 차이로 야당 후보들을 앞서고 있으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한나라당이 백승 우세를 지켜온 재보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야권 단일화는 무엇보다 야권의 지지층인 20~40대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야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pkpk@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59 창사
광주일보
1952-2011

예술작품으로 빛나는 이태리의 정통 명품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MUSEO 뮤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은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 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쁨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점보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어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

신세계백화점 금호빌드 뮤제오 메리어트 웨딩홀 동성역 동성교차로 상록서관 KB국민은행 - 화정역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